

스이젠키 조주엔 정원

구마모토성의 남동쪽에 위치한 스이젠키 조주엔은 1632년, 구마모토번의 번주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가 조성한 정원입니다. 1630년대에는 이곳에 스이젠키라는 이름의 절과 찻집이 세워졌습니다.

스이젠키 조주엔은 아소산의 샘물로 만든 연못을 중심으로 조성된 회유식 정원(원내를 산책하며 감상하는 정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놓인 2개의 돌다리로 연못을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정면(정원 동쪽)을 바라보면 후지산을 본떠 완벽한 좌우대칭으로 조성된 석가산이 있으며 세이난 전쟁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반란군이 이곳 석가산에 포병대를 배치하여 공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왼쪽(정원 북쪽)에는 세이난 전쟁으로 인해 구마모토시가 초토화된 이듬해인 1878년에 지어진 이즈미 신사가 있습니다. 배례를 올리는 하이덴(拜殿)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소나무는 호소카와 가문의 초대 번주, 다다토시가 재배한 분재가 성장한 나무로 수령은 400년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주홍빛의 도리이 기둥문을 앞에 둔 이나리 신사가 나타납니다. 오곡 풍양의 신을 모시는 이나리 신사 바로 옆에는 초봄이면 꽃을 피우는 네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야부사메와 정원에서 재배되는 꽃들

정원 동쪽 끝을 따라 자갈을 깐 외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1878년에 신사가 창건된 이래, 이곳은 이즈미 신사의 봄 축제와 여름 축제의 일환으로 야부사메를 실시해 왔던 마장입니다. 오늘날의 야부사메는 무술이라기 보다 신사의 의식으로서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호소카와 가문에서는 야부사메의 유파 중에서 다케다류를 계승해 왔습니다. 마장을 따라 전통 히고 롯카(六花) 중에서도 히고 동백나무, 히고 산다화, 히고 작약, 히고 국화, 히고 창포 총 5종의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마장 남쪽에 마련된 작은 구획에는 호소카와류 분석(크고 작은 흰 돌을 흑칠한 그릇에 나란히 늘어놓고 풍경을 묘사한 작품)을 본떠 만든 돌 정원이 있으며 전통과는 차별화된 재미있는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횃불을 비춘 노가쿠덴

정원 남쪽 끝에는 노가쿠덴으로 이어지는 벚꽃길이 있습니다. 히고 호소카와 가문의 초대 당주였던 다다토시의 할아버지인 호소카와 후지타카(1534-1610)는 노가쿠시(일본 전통 예술인 노가쿠 전문배우)로 활약했으며, 호소카와 가문은 모두 노(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과 함께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연극)에 정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사 창건과 동시에 지어진 최초의 노가쿠덴은 1965년에

소실되었으며, 현존하는 노가쿠덴은 구마모토현 남부 야쓰시로성의 성주였던 마쓰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1986년에 옮겨온 것입니다. 노가쿠덴에서는 여름밤이 되면 피워둔 모닥불과 함께 노를 선보이며 우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정원의 서쪽 끝자락에는 연못과 마주하며 가야부키(억새, 갈대, 떠 등을 사용하는 방식) 지붕을 올린 400년 된 건물 ‘고킨덴주노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차와 과자를 드실 수 있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